

# 현기증나는 '재즈'의 축복

## 대중적인 유행은 오히려 '비재즈적'인 징후

서동진

문화비평가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재즈에 대한 추파와 재즈에 대한 구애는 정말 재지(jazzy)하지 않다. 오히려 나같은 경우라면 '블루지'하다 말하고 싶은 게 더 온당한 듯 보인다. 그리고 너무나 비재즈적인 이 재즈 붐은 그 자체의 건망증과 부조리와 공포감으로 인해 더욱 애처롭고 측은하다. 더욱이 그것이 보기에 따라 심상찮은 조짐을 보일 때, 즉 유행과 무관하며 또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법한 것이 유행이 될 때의 해괴함에 주의하게 될 때, 그 거슬리는 징후에 대해 한번쯤 정색할 필요가 있다.

### 고급취미로 떠오른 '재즈'

분명 지금 재즈는 고급취미이며 미학적 원리이다. 그렇듯 천민적이던 재즈에게 이는 분명 대단한 영광이며 현기증나는 축복이다. 그러나 절대 재즈와 결맞지 않는 이 재즈의 영화를 마음 편히 받아들이기엔 어딘가 시원찮은 구석이 있으며 거북한 기미가 있다. 장정일의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그리고 하재봉의 《쿨 재즈》로 이어지는 재즈와 통정한 자들의 재즈적인 사유, 재즈적인 글쓰기 선언은 제법 많은 이들의 구미를 돋웠고,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분명 그것이 종래 글쓰기와 상상력에 대한 반성의 결실이라면 이를 지레 폄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화적 강령이자 그 모든 것의 지침이 되어버린 재즈에게, 감히 그 자리를 허락할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납득된다면 그 설득의 힘을 순순히 따라야 한다. 그건 재즈의 호오(好惡)와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 재즈는 지금 점잖게 취미의 정원에 서 머물기를 거절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에게 호사가의 손아귀나 꺾바퀴 근처를 맴도는 것이 아닌 형편이다. 이미 《재즈 속으로》라는 재즈 입문서가 음악서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판매부수를 올린 바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편인 《재즈 투데이 Jazz Today》라는 책도 얼마 전에 선보였다. 심지어 감개무량하게도 중앙 일간지에서 출간하는 고전음악선집 가운데 한 권으로 재즈 편이 출간될 지경이다.



**분명 지금 재즈는**

**고급취미이며 미학적 원리이다.**

**그러나 절대 유행할**

**기미가 없는 고독한 취미의**

**재즈를 유행시키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의 '재즈붐'은 전혀 재즈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음반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라이선스 출반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직배사들이 자신들의 재즈 레이블이 보유하고 있는 레퍼토리를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고, 다른 어느 장르의 음반보다 유달리 음반의 중수도 많은 재즈 음반들이 아예 꾸러미로 쏟아져나온다. 그리하여 기막히게도 빌보드 차트와 다름 없는 음반차트에서 유독 서울에만 재즈 싱어 빌리 홀리데이의 음반이 차트의 수위를 차지한다. 물론 그것이 썩 좋아서라기보다는 기분을 돋우고 누그러뜨리는 이유가 크겠지만 카페와 술집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재즈를 틀어댄다.

### 석연찮은 문화적 징후들

하지만 이러한 붐의 심리학을, 그리고 그 심리학을 자산으로 삼은 문화적 징후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 필자는 그에 대한 혐의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팝결처의 만화경에 대한 패배적 퇴행에서 찾고자 한다. 기실 재즈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애초 흑인음악의 음악적 자산으로 출발했을 때 겪어야 했던 비운, 즉 유달리 민감한 육체성과 즉흥성으로 인해 그것은 항상 소수자의 음악이었고 또 언어였다. 따라

서 재즈는 극히 무한하면서도 극히 협소하다. 즉 너무나 자족적이고 재귀적이다.

빌리 홀리데이의 저 유명하고 슬픈 〈스트레인지 프루츠 strange fruits〉(교수형을 당한 흑인노예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로 빌리 홀리데이를 대표하는 곡)같은 곡이 있어 아주 이따금 집단적인 심성을 묶어주기는 해도 재즈는 자신의 고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재즈와 항상 동행하는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즉흥적인 감각 혹은 그에 따른 반응이나 연주를 일컫는 말)이란 말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리듬에 대한 자연성을 요구한다.

재즈와 아예 일체가 될 각오가 없는 한 즉, 자신을 개입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즈는 분명 우리에게 적어도 지금은 가장 투명한 자아와 조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신전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몇몇은 이 황홀경 속에 들어박혀 그 어느것 하나 자신과 한 몸이 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풀려난다.

불행하게도 임프로비제이션을 누릴 만큼 육체적이지 못한 이곳에서 재즈는 괴팍한 신경증적인 자아들의 악취미이며, 그런 연

유로 자신에 병적으로 골몰하는 자들의 자산이며 또 계급적으로도 너무나 소시민적이다. 시뮬레이션과 샘플링과 비트와 패션으로 만화경처럼 펼쳐진 대중문화의 씬은 너무나 고요하고 자명한 자아 혹은 자기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악몽임이 분명하다.

이들에게 이 세계가 지극히 천하고 진부하며 또 어수선하고 투박할 것이다. 쓴살같은 변화가 있음에도 결국에는 한결같은 모습일 뿐인, 그리고 자신의 개입 범위를 언제나 거절한 채 제 자신의 힘으로 어슬렁대는 대중문화야말로 최고의 괴물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주문과 강제 없이 자신을 농연하게 녹여주는 재즈야말로 축복일 것이다. 항상 비범하게 쏟아내는 불협화음과 변주와의 주고받음이야말로 자신의 고독에 대한 미학적 면죄부일 것이다.

### 고독한 취미

그렇게 본다면 재즈는 절대 유행할 기미가 없는 고독한 취미이다. 언제나 몇몇 인물들에게, 자신의 고유함을 수호하고자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상 모두가 끼어드는 한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인 행복이다. 그런 재즈를 자신의 글쓰기의 강령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좀 후하게 쳐서 끼리끼리만 내통할 수 있는 몫시 섬세하고 가냘픈 고통과 불행 혹은 기쁨의 울림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사유의 흐름을 추켜올려도 그것이 퇴행의 빌미이며 대중문화적 세계로부터의 은둔을 위한 알리바이이며, 그로부터 패배적 도주를 가리기 위한 해프닝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불길하게도 그것이 세계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유와 개입의 가장 날카로운 적인 취미적인 자아-미적인 것을 통해 혹은 불합리한 것을 통해 세계를 부인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아름다움은 취미적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이다-에 굴복하는 것인 한 이는 위협하기 짝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금 재즈를 유행시키고 있지 않은가. 급기야 낭비적 유행이 되었다는 말이 될 터이고 이는 절대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